

# “韓·싱가포르, 우호관계 격상... 4차혁명시대 함께 준비”

## 文 대통령-리셴룽 총리 회담

### 에너지·스타트업 교류·협력 강화 교역 확대·이중과세 방지 협정도

한국과 싱가포르 정상이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와 중소기업·스타트업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등 한·아세안 간 상생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리셴룽 총리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회담하고 양국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싱가포르와의 우호·협력 관계를 호혜적·포괄적·미래지향적으로 한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대통령궁(이스타나)에서 리셴룽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리셴룽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격상시키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리 총리는 신남방정책 기초 하에 향후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의 우수한 기술력·자본력을 잘 접목해 활용한다면 첨단제조·인공지능·빅데이터·핀테크·바이오·의료 등 첨단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국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

해 현재 약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또 그동안 추진해온 상생번영의 경제협력의 평가하면서 앞으로 싱가포르의 교통·인프라·에너지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싱가פור는 중동을 제외한 한국의 제1위 해외 건설시장이자 아세안 내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국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제3국에 공동 진출

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인 정부와 국민 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정상 차원을 포함해 고위급 인사 교류부터 늘어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며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우수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재 교류를 넓히고, 아세안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한·싱가포르 공동연수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공헌한 것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리 총리는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끌어낸 한국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런 상황 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회담이 끝난 뒤 두 정상은 양국 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협력·환경협력·중소기업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은 싱가포르의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리 총리와 양 국민 간 우호·협력 증진, 상생번영의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 역내 평화·안보 증진 등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아세안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프랜차이즈, 아세안 진출에 ‘물심양면’ 지원

###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인도·싱가포르에 ‘스타트업 센터’ “해외 진출로 골목상권 침투 해소”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초기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인도와 싱가포르에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글 아카데미’의 한국판을 이들 나라에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만 머물기 쉬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 아세안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홍중학 장관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세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센터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를 정부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인도와 싱가포르에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 대통령의 직전 3박4일간의 인도 순방에도 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센터가 만들어지면 한국의 창업자와 이들 나라의 창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네트워킹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중기부가 추구하는 새로운 교역 모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나라별로 KOTRA 사무소를 비롯해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좀더 확대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세계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홍중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싱가포르 상그릴라 라사 센토사 리조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도 방문 성과와 싱가포르에서의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돕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는 분명히 혁신성을 갖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가 동남아, 아세안 국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홍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열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상담회’ 현장에도 방문,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가졌다.

상담회에는 바보스, 이번지깅통집, 보스턴오밍, 청년다방, 떡담, 국수나무, 치킨풍, 커피베이 등 국내 프랜차이즈 10곳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에서 외식 브랜드 상위 10위 중 6개를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다. 10위권에 한국 브랜드는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25곳이 현지에서 진출해 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

다. 이 가운데 더본코리아, 탐앤탐스, 파리크라상을 제외한 22곳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홍 장관은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국내에서 골목상권에 자주 침투해 문제가 되는데, 그보다는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전했다.

홍 장관은 또 “그동안 싱가포르가 주로 한국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 투자하는 펀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공동펀드 조성 등 MOU(양해각서)를 싱가포르 측과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현재 이해당사자간 논쟁이 한창인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서민의 지갑을 ‘뽕뽕’하게 해서 돈을 들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지금 속도가 맞지 않아서 돈이 돌기 전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됐고, 원래 생각하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서민경제에 돈이 들게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 한국당 비대위원장 후보 김병준 등 5명 압축

자유한국당은 12일 김성원·전희경 의원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변호사,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등 5명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압축했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물론 국민을 상대로 추천받은 결과 150여분의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실무진이 세부 검토를 하고 비대위 준비위의 심층적인 난상토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다섯 분 모두 발표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며 “어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다른 분은 비대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경기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의원으로, 현재 한

국당 지역구 의원 가운데 최연소(45)다. 초선의원 모임 간사를 지냈고, 이번엔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5선 의원을 지낸 원로 정치인으로, 신민당 공동대표·한나라당 상임고문·민주국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 2017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과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말에는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당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또 6·13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희경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로, 지난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과, 한국당 공동대변인을 역임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보수진영 시민사회 단체에서 활동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의 자격 등에 관해 토론을 하고, 이번 주말 정도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오는 17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추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기 위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